

농약중독사고 원인

일본: 자살·오음
중국: 살포중

「富山縣 농촌醫學研」조사, 마스크 미착용 공통

中國의 농약중독사고는 살포중에 67%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日本은 자살이나 오음(誤飲) 등 농작업 이외에서 발생하는 사

례가 52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은 조사결과는 日本의 「富山縣 농촌의학연구소」가 中國의

河南省(조사기간 1990~1993)과 日本의 富山縣(조사기간 1988~1993) 등 2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.

조사결과 중독사고의 원인을 보면 살포중에 日本은 47.8%, 中國은 67.3%로 작업중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.

그러나 日本은 자살 44.4%, 오음(誤飲) 7.8%로 과반수가 넘는 52.2%가 자살과 오음인 반면, 中國은 자살 26.8%, 오음 4.6%로 日本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살포중 사고의 경우 中國은 약 90%가 45세 미만인데 비해 日本은 약 80%가 4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.

사용된 농약을 보면 日本은 유기인제가 20%인 반면 中國은 90%가 유기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양국의 공통된 문제는 살포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.

관계자들은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독성과 안전사용, 마스크 및 방제복 착용 등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. **농약정보**

日本의 농약중독사고 연차별 원인별 건수 (농림수산성 식물방역과)

원 인	'83	'84	'85	'86	'87	'88	'89	'90	'91
안경, 마스크 및 복장 등 장비 불충분	17	24	38	30	26	14	7	4	6
강한 바람에서의 살포 및 안이한 취급 등 본인의 부주의	2	8	3	13	3	2	3	6	3
장시간 살포에 의한 피로나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살포	9	6	9	4	5	1	1	4	3
보관불량에 의한 노인, 유아 등의 오음	28	11	14	10	7	7	4	5	10
농약사용후 작업관리 불량	1	1	0	0	2	0	0	0	0
농약의 부정사용	1	1	17	4	5	1	0	0	0
살포중 비산	15	1	0	0	0	2	4	3	0
알레르기 체질	1	1	0	4	1	0	1	0	0
방제기 고장, 조작실수	1	0	0	0	0	1	1	0	1
약액운반중 용기파손 또는 엇지르는 등 우발사고	0	1	0	1	0	1	0	1	0
하우스내 방제중 약액 흡입	0	3	0	0	1	0	4	1	0
기타	0	4	3	0	0	2	2	0	2
원인불명	4	13	17	0	3	0	3	0	0
계	79	74	101	66	53	31	30	24	25
살포자 부주의에 의한 비율(%)	72	68	63	86	81	77	50	79	88

